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2. 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EU 중앙은행, 유로 최고권 500유로화 지폐 발행 중단
 - 유럽중앙은행(ECB)은 돈세탁, 범죄 및 테러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받아온 500유로화에 대해 1.28부터 발행을 중단한다고 발표
 - * 9.11 테러 배후인 '오사마 빈 라덴'이 테러자금 은닉수단으로 500유로화를 사용

미주

- 캐나다, 美 FBI 제보로 도심테러 계획한 10대 검거
 - 1.25 캐나다 합동테러수사대는 지난달 FBI 첩보로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거주하는 남성에 대해 수사 진행 후 검거,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
 - * 첩보입수 직후 수사관 300여명이 대상자 추적미행, 항공감시 등 수사
- 美·탈레반, 아프간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합의
 - 1.28 「할릴자드」 아프간 주재 美특사는 1.21부터 6일간 협상을 진행, 美는 14,000명의 아프간 주둔군을 철수하고 탈레반은 아프간 내에서 테러세력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평화협정에 합의했다고 발표
- 美 정보당국, "ISIS의 테러위협 지속 가능성" 경고
 - 1.29 美 CIA 및 DNI(국가정보국)는 ISIS가 이라크와 시리아 내 대테러 압박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은밀히 조직을 강화하고, 미국 등 서방국가에 대한 테러공격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

아 · 태평양

- ISIS, ‘필리핀 성당 폭탄테러’ 배후 자처
 - ISIS는 자체 선전매체인 아마크(AMAQ)를 통해 지난 1.27 필리핀 남부 홀로섬의 성당 연쇄폭탄테러*를 본인들의 소행이라고 발표
 - * 1.27 성당 입구 및 주변에서 연쇄폭탄테러가 발생하여 27명 사망, 111명 부상
- 국내 대테러 전문가, ‘외로운 늑대’ 테러 대비 필요성 주장
 - 1.29 경찰청이 발간한 「대테러연구」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적 원한·분노 증가,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, 양극화 등에 따른 ‘외로운 늑대’식 독자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
 - * 차량돌진테러, 드론테러, 사이버테러도 국내에서 충분히 발생가능한 테러유형으로 분석

중 동

- 이라크, 자국 쿠르드족 공격한 터키와 마찰
 - 1.27 이라크는 자국 쿠르드주거지에서 쿠르드노동자당 소탕을 명목으로 주민들을 공격한 터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나, 터키는 소탕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발표

아 프 리 카

- 아프리카, '19년 연초 15일간 테러 관련 614명 사망
 - 아프리카연합(AU)은 '19.1.1~15 테러공격과 대테러작전으로 614명이 사망(사헬지역이 90%) 하였으며, 테러 발생률이 높은 나라는 부르키나 파소, 케냐, 말리, 나이지리아, 소말리아라고 발표
 - * 테러 직접공격으로 190명 사망, 보안군의 대테러작전으로 424명 사망

시리아 시아파 성지에서 연쇄폭탄테러

- '16.1.31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시내 사이이다 자이납 지역에 있는 시아파 성지* 근처에서 연쇄폭탄테러가 발생(사망 50여명, 부상 100여명 이상)
 - * 이슬람 창시자 「마호메트」의 외손녀 「자이납」의 묘지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곳으로, 시아파 무슬림의 대표적인 순례 성지임
- 테러범은 1차로 성지 인근 버스정류장에 차량을 돌진하여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였고, 현장에 모여든 민간인·의료진을 겨냥하여 2명의 자살폭탄테러범이 자폭하는 2차 테러가 발생하여 다수 사상자 발생
- UN 주도 아래 시리아 정부와 반군이 제네바에서 제3차 평화회담을 진행하던 기간에 同 테러가 발생하였는데
 - 사건 직후 ISIS가 소셜미디어에 “지하드 전사들이 시리아 시아파 성지에 공격을 수행했다”고 주장함에 따라, ISIS가 시리아 정부와 반군의 평화회담을 방해하기 위해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분석

< 헤즈볼라(Hezbollah) >

- (결성) '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계기로 시아파 이슬람 단체인 '이슬라믹 아말'과 '다와'당이 연합하여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美('97.10), 英('01.3), 캐나다('02.12)
- (핵심인물) 하산 나스랄라(사무총장), 나임 카셈
- (활동지역) 레바논 베이루트, 베카계곡 및 남부지역
- (활동수법) 국경지역 이스라엘軍 대상 게릴라戰 및 해외소재 유대교회당, 이스라엘 관광객 등 대상 폭탄테러 자행
- (주요테러) '83.10 美해병대 캠프에 폭탄차량 돌진(사망 241), '84.9 美대사관 공격(사망 20), '94.7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유대인센터 공격(사망 80)

